

치위생과 학생들의 AIDS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조사연구

강현숙

수원여자대학 치위생과

색인: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지식, 태도

1. 서론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의해 유발되며 HIV 감염의 마지막 단계에 일어나는 증상들이다. AIDS는 198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이래, 세계적으로 약 4,200만 명이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미에 98만 명, 중미 44만 명, 남미 1백 5십만 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AIDS 감염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2,940만 명으로 밝혀졌으며, 그 밖에도 동남아시아에 600만 명,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120만 명의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 한국의 경우, 1985년 국내 첫 감염인의 발생을 시작으로 2003년 6월 말까지 251명의 HIV 감염자가 확인되어 우리나라 HIV 감염자

는 모두 2,258명이라고 밝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801(35.5%)명으로 남자 724(32.1%), 여자 77(3.4%)명으로 가장 많고, 성별현황은 총 감염자 2,258명 중 남자가 2,010(89.0%)명, 여자가 248(11.0%)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대에서도 597(26.4%)명으로 남자 520(23.0%)명, 여자 77(3.4%)명으로 밝혀졌다. 이 중 AIDS 환자는 354명이며, 전체 감염자 중 456명이 사망하여 1,802명의 감염자가 확인됐다²⁾. 이는 2003년 6월 말까지 하루에 1.4명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6% 증가했으며 발견된 251명의 감염자에 대해서 역학 조사중이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성병 감염률('00년 6,924명, '01년 12,320명, '02년 14,405명)도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AIDS에 대한 경각심 부족, 콘돔 사용 부진 등으로 HIV 감염자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새로 확인되는 감염자의 수가 계속 늘고

있으며, 정부에 보고된 HIV 감염자의 수보다 실제 감염자의 수는 4~5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HIV 감염은 선진국에서는 70년대에, 열대아프리카 지역은 그 이전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HIV에 감염되면, 수주 뒤에 독감과 비슷한 열, 인후통, 전신통, 림프선종대 등의 증상이 감염자 30~40%에서 나타났다가 치료 없이 1~2주 후에 저절로 소실된다. 그 후 수년간 무증상으로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하지만 이 시기에 면역기능은 계속 저하된다. 또 일부 감염자는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전신림프선이 붓기도 한다. 전형적인 AIDS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식욕부진, 식은땀, 피로감, 미열, 설사, 체중감소 등 전구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AIDS 관련 증상이라고 한다. AIDS 증상은 감염 후 8개월~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 각종 기회감염이 나타나고 치료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의 악화와 카포시육종, 림프종과 같은 악성종양이 발생하고 중추신경계를 침범할 때는 마비증, 백치증이 유발되기도 한다³⁾. 치과 환자에서 치과 종사자로서의 HIV 감염의 전파 위험성은 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위험성은 있다. 1997년 6월부터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는 미국에서 직업과 관련되어 HIV 감염이 입증된 52명의 의료종사자들과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111명을 보고하였다. 입증된 경우는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혈액, 체액 또는 조직에 노출된 후 혈청변환, 즉 노출되는 HIV 음성이었다가 나중에 양성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서 86%는 날카로운 것으로부터 찔리는 등 피부를 통한 노출이고, 10%는 점막을 통한 노출, 2%는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치과진료실에서 HIV에 감염되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노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4,5)}. 과거에는 HIV 감염이 치명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치료제가 계속 개발됨으로써 점차 만성상태의 질병이 되고 있으며, AIDS 환자들의 생존률 증가로 인하여 이들 집단에 대한 치과치료의 요구도 증가되고 있다⁶⁾. 따라서 향후 치과진료실에서 종사하게 될 치위생과 학생들의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교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2003년 9월 경기도 소재 3년제 치위생과에 재학중인 1학년 121명(32.7%), 2학년 132명(35.7%), 3학년 117명(31.6%)으로 총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Diclement 등⁷⁾과 선행연구의 설문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설문문항은 AIDS에 관한 지식 측정 항목 24문항과 태도 및 신념을 알아보는 항목 13개 문항으로 총 37문항으로 하였다.

2.2.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위생과 학생의 ADIS에 대한 지식의 문항별 반응 및 AIDS에 대한 태도의 문항별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학년에 따라 ADIS에 대한 지식의 문항별 반응 및 AIDS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AIDS에 대한 지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AIDS에 대한 지식

응답자들의 AIDS에 대한 지식은(표 1), AIDS가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46.5%로 오답률 53.5%보다 낮게 나타나 대체로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IDS는 신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의학적 상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70.8%의 학생들이 바르게 응답하였다. AIDS 고위험군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인 “동성애자는 AIDS에 걸리기 쉽다”는 81.9%의 학생이 바르게 알고 있었으며, 누구라도 AIDS에 걸릴 수 있음은 58.6%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임신한 여성이 AIDS에 걸리면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수직감염의 사실은 87.6%의 학생들이 바르게 알고 있었으며, “AIDS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그 질병으로 죽는다”는 문항에 바르게 응답한 학생은 45.1%에 불과했다. “성교시 콘돔을 사용하면 AIDS에 감염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85.1%, “AIDS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으면 AIDS에 감염될 수 있다”는 95.9%, “AIDS에 걸린 사람이 사용한 주사바늘을 사용하면 AIDS에 걸린다”는 92.4%의 학생들이 바르게 응답하였다. “AIDS는 생명을 위협한다”는 항목에서는 90.8%, “AIDS에 걸린 사람들은 AIDS로 인해 다른 많은 병에 걸린다”는 항목에서는 76.8%의 학생들이 바르게 인지하고 있었다. “AIDS는 모기와 같은 벌레에 물려 감염될 수도 있다”에 대한 정답률은 41.1%로 비교적 낮았으며, “AIDS는 가벼운 입맞춤으로 감염될 수 있다”에서는 74.6%의 학생이 바르게 응답하였다. “AIDS에 걸린 사람과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에 대해서는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학생이 84.1%로 나

타났으며, “AIDS에 걸린 사람과 물건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AIDS에 감염될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69.2%의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 30.8%보다 많았다. “AIDS는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는 62.7%, “AIDS에 걸린 사람과 악수를 하면 AIDS에 걸릴 수 있다”에 대해서는 90.8%, “스트레스는 AIDS를 발병시킨다”는 76.8%로 정답률을 나타냈다. “AIDS는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는 항목은 38.9%의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으며, AIDS의 원인에 대해서는 41.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AIDS를 예방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68.1%로, “AIDS는 초기에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라는 항목은 54.9%의 학생들이 바르게 인지하고 있었다. “새로운 백신이 AIDS 예방을 위해 개발되었다”에 대해서는 67.0%의 학생이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학생 33.0%보다 많았다. “AIDS는 심각하지 않으며, 감기를 앓는 것과 같다”는 문항은 82.7%의 학생들이 바르게 인지하고 있었다.

3.2. 학년에 따른 AIDS에 대한 지식

표 2는 학년에 따른 AIDS에 대한 지식을 나타낸 것이다. “AIDS는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라는 항목의 정답률은 2학년 54.5%, 3학년 48.7%, 1학년 35.5%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52$, $p<.01$). “AIDS는 신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의학적 상황이다”에 대해서는 2학년이 76.5%로 1학년 66.9%와 3학년 68.4%보다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동성애자는 AIDS에 걸리기 쉽다”는 2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이 각각 84.8%, 83.8%로 1학년 학생 76.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누구라도 AIDS에 걸리기 쉽

표 1. AIDS에 대한 지식 정답률(n = 370)

	문	항	정답	오답	계
1	AIDS는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		172 (46.5)	198 (53.5)	370 (100.0)
2	AIDS는 신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의학적 상황이다		262 (70.8)	108 (29.2)	370 (100.0)
3	동성애자는 AIDS에 걸리기 쉽다		303 (81.9)	67 (18.1)	370 (100.0)
4	누구라도 AIDS에 걸리기 쉽다		217 (58.6)	153 (41.4)	370 (100.0)
5	임신한 여성이 에이즈에 걸리면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87.6)	46 (12.4)	370 (100.0)
6	AIDS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그 질병으로 죽는다		167 (45.1)	203 (54.9)	370 (100.0)
7	성교시 콘돔을 사용하면 AIDS에 감염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315 (85.1)	55 (14.9)	370 (100.0)
8	AIDS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으면 AIDS에 감염될 수 있다		355 (95.9)	15 (4.1)	370 (100.0)
9	AIDS에 걸린 사람이 사용한 주사바늘을 사용하면 AIDS에 걸린다		342 (92.4)	28 (7.6)	370 (100.0)
10	AIDS는 생명을 위협한다		336 (90.8)	34 (9.2)	370 (100.0)
11	AIDS에 걸린 사람들은 AIDS로 인해 다른 많은 병에 걸린다		284 (76.8)	86 (23.2)	370 (100.0)
12	AIDS는 모기와 같은 벌레에 물려 감염될 수도 있다		152 (41.1)	218 (58.9)	370 (100.0)
13	AIDS는 가벼운 입맞춤으로 감염될 수 있다		276 (74.6)	94 (25.4)	370 (100.0)
14	AIDS에 걸린 사람과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		311 (84.1)	59 (15.9)	370 (100.0)
15	AIDS에 걸린 사람과 물건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256 (69.2)	114 (30.8)	370 (100.0)
16	AIDS는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232 (62.7)	138 (37.3)	370 (100.0)
17	AIDS에 걸린 사람과 악수를 하면 AIDS에 걸릴 수 있다		336 (90.8)	34 (9.2)	370 (100.0)
18	스트레스는 AIDS를 발병시킨다		284 (76.8)	86 (23.2)	370 (100.0)
19	AIDS는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144 (38.9)	226 (61.1)	370 (100.0)
20	AIDS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153 (41.4)	217 (58.6)	370 (100.0)
21	규칙적인 운동으로 AIDS를 예방할 수 있다		252 (68.1)	118 (31.9)	370 (100.0)
22	AIDS는 초기에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		203 (54.9)	167 (45.1)	370 (100.0)
23	새로운 백신이 AIDS 예방을 위해 개발되었다		122 (33.0)	248 (67.0)	370 (100.0)
24	AIDS는 심각하지 않으며, 감기를 앓는 것과 같다		306 (82.7)	67 (17.3)	370 (100.0)

다"는 항목은 2학년이 64.4%, 3학년 59.8%, 1학년 51.2%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신한 여성이 AIDS에 걸리면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해서는 2학년이 91.7%, 1학년 86.0%와 3학년 84.6%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AIDS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그 질병으로 죽는다"라는 항목의 응답률은 1학년 56.2%, 3학년 46.2%, 2학년 34.1%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53$, $p<.01$). "성교시 콘돔을 사용하면 AIDS에 감염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에 대해서는 2학년, 3학년 학생이 각각 87.1%, 87.2%로 1학년 학생 81.0%보다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AIDS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으면 AIDS에 감염될 수 있다"는 항목은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97.5%, 97.0%로 3학년 93.2%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AIDS에 걸린 사람이 사용한 주사바늘을 사용하면 AIDS에 걸린다"에 대해서는 2학년이 95.5%, 1학년 90.9%, 3학년 90.6%보다 바르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AIDS는 생명을 위협한다"는 항목에서는 2학년 92.4%, 1학년 91.7%, 3학년 학생 88.0%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AIDS에 걸린 사람들은 AIDS로 인해 다른 많은 병에 걸린다"는 3학년 86.3%, 2학년 81.1%, 1학년 62.8%로 학년이 높을수록 바르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0.57$, $p<.001$). "AIDS는 모기와 같은 벌레에 물려 감염될 수도 있다"는 3학년 56.1%, 2학년 43.9%, 1학년 38.0% 순이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IDS는 가벼운 입맞춤으로 감염될 수 있다"에 대해서는 2학년 79.5%, 3학년 73.5%, 1학년

70.2% 순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AIDS에 걸린 사람과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항목에서는 2학년이 90.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3학년 83.8%, 1학년 76.9%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31$, $p<.01$). "AIDS에 걸린 사람과 물건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AIDS에 감염될 수 있다"는 항목의 응답률은 2학년과 3학년 각각 72.0%, 70.9%로 1학년 64.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AIDS는 음식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에 관한 항목은 3학년 65.8%, 2학년 64.4%, 1학년 57.9% 순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IDS에 걸린 사람과 악수를 하면 AIDS에 걸릴 수 있다"는 항목은 2학년 94.7%, 1학년 89.3%, 3학년 88.0%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스트레스는 AIDS를 발병시킨다"에 대해서는 2학년이 83.3%, 3학년 76.9%, 1학년 69.4%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6.85$, $p<.05$). "AIDS는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는 2학년이 44.7%, 3학년 38.5%, 1학년 33.1%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AIDS의 원인을 묻는 항목은 3학년 46.2%, 2학년 40.9%, 1학년 37.2%로 학년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AIDS를 예방할 수 있다"는 2학년이 75.8%, 3학년 학생 69.2%, 1학년 58.7%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58$, $p<.05$). "AIDS를 초기에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 항목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2학년 62.9%, 3학년 53.8%, 1학년 47.1%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표 2. 학년에 따른 AIDS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χ^2 (df)	p
	정답	오답	정답	오답	정답	오답		
1 AIDS는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	43 (35.5)	78 (64.5)	72 (54.5)	60 (45.5)	57 (48.7)	60 (51.3)	9.52** (2)	0.009
2 AIDS는 신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의학적 상황이다	81 (66.9)	40 (33.1)	101 (76.5)	31 (23.5)	80 (68.4)	37 (31.6)	3.29 (2)	0.193
3 동성애자는 AIDS에 걸리기 쉽다	93 (76.9)	28 (23.1)	112 (84.8)	20 (15.2)	98 (83.8)	19 (16.2)	3.12 (2)	0.210
4 누구라도 AIDS에 걸리기 쉽다	62 (51.2)	59 (48.8)	85 (64.4)	47 (35.6)	70 (59.8)	47 (40.2)	4.60 (2)	0.100
5 임신한 여성이 에이즈에 걸리면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4 (86.0)	17 (14.0)	121 (91.7)	11 (8.3)	99 (84.6)	18 (15.4)	3.27 (2)	0.195
6 AIDS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그 질병으로 죽는다	68 (56.2)	53 (43.8)	45 (34.1)	87 (65.9)	54 (46.2)	63 (53.8)	12.53** (2)	0.002
7 성교시 콘돔을 사용하면 AIDS에 감염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98 (81.0)	23 (19.0)	115 (87.1)	17 (12.9)	102 (87.2)	15 (12.8)	2.44 (2)	0.295
8 AIDS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으면 AIDS에 감염될 수 있다	118 (97.5)	3 (2.5)	128 (97.0)	4 (3.0)	109 (93.2)	8 (6.8)	3.46 (2)	0.177
9 AIDS에 걸린 사람이 사용한 주사바늘을 사용하면 AIDS에 걸린다	110 (90.9)	11 (9.1)	126 (95.5)	6 (4.5)	106 (90.6)	11 (9.4)	2.69 (2)	0.261
10 AIDS는 생명을 위협한다	111 (91.7)	10 (8.3)	122 (92.4)	10 (7.6)	103 (88.0)	14 (12.0)	1.62 (2)	0.446
11 AIDS에 걸린 사람들은 AIDS로 인해 다른 많은 병에 걸린다	76 (62.8)	45 (37.2)	107 (81.1)	25 (18.9)	101 (86.3)	16 (13.7)	20.57*** (2)	0.000
12 AIDS는 모기와 같은 벌레에 물려 감염될 수도 있다	46 (38.0)	75 (62.0)	58 (43.9)	74 (56.1)	48 (41.0)	69 (59.0)	0.92 (2)	0.633
13 AIDS는 가벼운 입맞춤으로 감염될 수 있다	85 (70.2)	36 (29.8)	105 (79.5)	27 (20.5)	86 (73.5)	31 (26.5)	2.99 (2)	0.225
14 AIDS에 걸린 사람과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	93 (76.9)	28 (23.1)	120 (90.9)	12 (9.1)	98 (83.8)	19 (16.2)	9.31* (2)	0.010
15 AIDS에 걸린 사람과 물건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78 (64.5)	43 (35.5)	95 (72.0)	37 (28.0)	83 (70.9)	34 (29.1)	1.92 (2)	0.384
16 AIDS는 음식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70 (57.9)	51 (42.1)	85 (64.4)	47 (35.6)	77 (65.8)	40 (34.2)	1.86 (2)	0.394
17 AIDS에 걸린 사람과 악수를 하면 AIDS에 걸릴 수 있다	108 (89.3)	13 (10.7)	125 (94.7)	7 (5.3)	103 (88.0)	14 (12.0)	3.82 (2)	0.148
18 스트레스는 AIDS를 발생시킨다	84 (69.4)	37 (30.6)	110 (83.3)	22 (16.7)	90 (76.9)	27 (23.1)	6.85* (2)	0.033
19 AIDS는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40 (33.1)	81 (66.9)	59 (44.7)	73 (55.3)	45 (38.5)	72 (61.5)	3.61 (2)	0.164
20 AIDS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45 (37.2)	76 (62.8)	54 (40.9)	78 (59.1)	54 (46.2)	63 (53.8)	1.99 (2)	0.370
21 규칙적인 운동으로 AIDS를 예방할 수 있다	71 (58.7)	50 (41.3)	100 (75.8)	32 (24.2)	81 (69.2)	36 (30.8)	8.58* (2)	0.014
22 AIDS는 초기에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	57 (47.1)	64 (52.9)	83 (62.9)	49 (37.1)	63 (53.8)	54 (46.2)	6.41* (2)	0.041
23 새로운 백신이 AIDS 예방을 위해 개발되었다	41 (33.9)	80 (66.1)	47 (35.6)	85 (64.4)	34 (29.1)	83 (70.9)	1.27 (2)	0.530
24 AIDS는 심각하지 않으며, 감기를 앓는 것과 같다	100 (82.6)	21 (17.4)	110 (83.3)	22 (16.7)	96 (82.1)	21 (17.9)	0.07 (2)	0.965

*p<.05, **p<.01, ***p<.001

표 3. 학년에 따른 AIDS에 대한 지식 정도

구분	1학년 (n=121)		2학년 (n=132)		3학년 (n=117)		전체 (n=370)		F	P
	M	SD	M	SD	M	SD	M	SD		
병의 전파에 대한 지식 (3~5, 7~9)	4.83	1.05	5.20	1.15	4.99	1.26	5.02	1.16	3.27*	0.039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전파 (13~17)	1.60	0.61	1.74	0.55	1.62	0.64	1.65	0.60	2.26	0.106
AIDS 원인 (1, 18~20)	1.75	1.14	2.23	1.11	2.10	1.10	2.04	1.13	6.19**	0.002
AIDS 예방 (21, 23)	0.93	0.74	1.11	0.68	0.98	0.73	1.01	0.72	2.29	0.103
AIDS 심각성 (2, 6, 22, 24)	2.53	1.06	2.57	0.98	2.50	0.98	2.54	1.00	0.13	0.879
AIDS에 대한 지식	15.55	4.03	17.31	4.08	16.56	4.02	16.50	4.10	5.97**	0.003

* $p < .05$, ** $p < .01$

6.41, $p < .05$). 새로운 백신 개발의 유무에 대한 항목은 2학년이 35.6%, 1학년 33.9%, 3학년 29.1%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AIDS의 심각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1학년 82.6%, 2학년 83.3%, 3학년 82.1%로 별다른 차이 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학년에 따른 AIDS에 대한 지식은 2학년이 1, 3학년보다 AIDS의 발생원인과 AIDS의 감염원인, 스트레스가 AIDS 발병에 미치는 영향, AIDS의 예방 방법에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AIDS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학년이 2, 3학년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AIDS가 다른 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바르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의 전파에 대한 지식은 2학년, 3학년, 1학년 순으로 높았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 3.27$, $p < .05$).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 병이 전파되지 않음에 대해서는 2학년이 1, 3학년 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AIDS의 원인에 대해서는 2학년, 3학년, 1학년

순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 6.19$, $p < .01$). AIDS 예방에 대해서는 2학년, 3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AIDS의 심각성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2학년, 1학년, 3학년 순으로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AIDS에 대한 지식은 2학년이 가장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 1학년 순으로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 5.97$, $p < .01$).

3.3. AIDS에 대한 태도

표 4는 AIDS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AIDS는 매스컴이 시사하는 것만큼 문제가 크지 않다"는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77.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렇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3.5%로 매우 적었다. AIDS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문항인 "나는 AIDS에 걸릴까봐 두렵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인식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각각 45.1%, 44.6%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개인적으로 감

표 4. AIDS에 대한 태도(n = 370)

문항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계
1 AIDS는 매스컴이 시사하는 것만큼 문제가 크지 않다	13 (3.5)	285 (77.0)	72 (19.5)	370 (100.0)
2 나는 AIDS에 걸릴까봐 두렵다	167 (45.1)	165 (44.6)	38 (10.3)	370 (100.0)
3 나는 AIDS에 걸리기 쉬운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	268 (72.4)	47 (12.7)	55 (14.9)	370 (100.0)
4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AIDS에 걸릴 확률이 덜하지는 않다	96 (25.9)	134 (36.2)	140 (37.8)	370 (100.0)
5 나는 AIDS보다 다른 질병에 걸리는 편이 낫다	281 (75.9)	32 (8.6)	57 (15.4)	370 (100.0)
6 AIDS에 감염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혈액검사를 한다면 혈액검사를 받겠습니까?	326 (88.1)	27 (7.3)	17 (4.6)	370 (100.0)
7 나는 AIDS에 대해 충분히 들었으므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57 (15.4)	263 (71.1)	50 (13.5)	370 (100.0)
8 학생들이 감염관리 시간에 AIDS 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	326 (88.1)	15 (4.1)	29 (7.8)	370 (100.0)
9 AIDS에 대한 혈청 양성반응 환자들의 치과치료를 특별한 격리시설을 갖춘 전문병원에서 진료해야 한다	340 (91.9)	18 (4.9)	12 (3.2)	370 (100.0)
10 치과병원에서는 간염바이러스보다 AIDS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방지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	190 (51.4)	99 (26.8)	81 (21.9)	370 (100.0)
11 개인 치과의원에서 AIDS 혈청반응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나는 이해할 수 있다	241 (65.1)	78 (21.1)	51 (13.8)	370 (100.0)
12 치과위생사는 AIDS 혈청 양성반응 환자도 꼭 같이 치료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162 (43.8)	99 (26.8)	109 (29.5)	370 (100.0)
13 내가 만약 AIDS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332 (89.7)	24 (6.5)	14 (3.8)	370 (100.0)

지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나는 AIDS에 걸리기 쉬운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는 그렇다 72.4%, 그렇지 않다 12.7%로 나타났다. 또한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AIDS에 걸릴 확률이 덜하지는 않다”는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36.2%로 그렇다고 인식하는 25.9%보다 많았으나 모른다에 37.8%로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였

다. “나는 AIDS보다 다른 질병에 걸리는 편이 낫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75.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8.6%로 비교적 적었다. “AIDS에 감염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혈액검사를 한다면 혈액검사를 받겠습니까?”라는 문항에는 88.1%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혈액검사에 응하겠

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7.3%로 비교적 적었다.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인 “나는 AIDS에 대해 충분히 들었으므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에 대해서는 71.1%의 학생들이 교육의 필요성에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 15.4%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감염관리 시간에 AIDS 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88.1%로 대부분을 차지해 AIDS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IDS 환자의 치료에 대한 질문으로 “AIDS에 대한 혈청 양성반응 환자의 치과치료를 특별한 격리시설을 갖춘 전문병원에서 진료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91.9%의 학생들이 전문시설로 위탁하는 것에 찬성하였고, 51.4%의 학생들이 “치과병의원에서는 간염바이러스보다 AIDS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방지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염방지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65.1%의 학생들이 “치과병의원에서 AIDS 혈청 양성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도 21.1%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책임감을 묻는 문항인 “치과위생사는 AIDS 혈청 양성반응 환자도 꼭 같이 치료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에 대해서는 43.8%가 그렇다, 아니다 26.8%로 나타났다. 진료과정에서 감지되는 두려움에 대한 문항에서는 “내가 만약 AIDS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8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6.5%로 비교적 적었다.

3.4. 학년에 따른 AIDS에 대한 태도

학년에 따른 AIDS에 대한 태도는 표 5와 같다. “AIDS는 마스크가 시사하는 것만큼 문제가

크지 않다”에 대해서는 1학년, 2학년 학생이 각각 81.0%, 81.1%로, 3학년 학생 68.4%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나는 AIDS에 걸릴까봐 두렵다”에 대해서는 1학년 50.4%, 3학년 49.6%, 2학년 34.8% 순으로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나는 AIDS에 걸리기 쉬운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에 대해서는 1학년과 3학년이 각각 73.6%, 73.5%로 2학년 70.5%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12$, $p<.05$).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AIDS에 걸릴 확률이 덜하지는 않다”에 대해서는 3학년이 41.9%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고, 1학년 36.4%, 2학년 31.1% 순의 인식을 보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7.31$, $p<.01$). “나는 AIDS보다 다른 질병에 걸리는 편이 낫다”에 대해서는 1학년과 2학년이 76.9%, 77.3%로 3학년 73.5%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IDS에 감염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혈액검사를 한다면 혈액검사를 받겠습니까?”에 대해서는 2학년이 92.4%로 1학년 86.0%와 3학년 85.5%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나는 AIDS에 대해 충분히 들었으므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에 대해서는 2학년 81.8%, 1학년 64.5% 3학년 65.8%의 순으로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3.95$, $p<.001$). 감염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은 95.5%로 2학년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고, 3학년 89.7%, 1학년 78.5%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AIDS에 대한 혈청 양성반응 환자의 치과치료를 특별한 격리시설을 갖춘 전문병원에서 진료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1학년 95.9%, 2학년 90.2%, 3학년 89.7%로 학년이 낮을수록 전문시

표 5. 학년에 따른 AIDS에 대한 태도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χ^2 (df)	p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1 AIDS는 마스크를 시사하는 것만큼 문제가 크지 않다	3 (2.5)	98 (81.0)	20 (16.5)	5 (3.8)	107 (81.1)	20 (15.2)	5 (4.3)	80 (68.4)	32 (27.4)	7.79 (4)	0.100
2 나는 AIDS에 걸릴까봐 두렵다	46 (38.0)	61 (50.4)	14 (11.6)	72 (54.5)	46 (34.8)	14 (10.6)	49 (41.9)	58 (49.6)	10 (8.5)	9.16 (4)	0.057
3 나는 AIDS에 걸리기 쉬운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	89 (73.6)	9 (7.4)	23 (19.0)	93 (70.5)	17 (12.9)	22 (16.7)	86 (73.5)	21 (17.9)	10 (8.5)	10.12* (4)	0.039
4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AIDS에 걸릴 확률이 덜하지는 않다	18 (14.9)	44 (36.4)	59 (48.8)	44 (33.3)	41 (31.1)	47 (35.6)	34 (29.1)	49 (41.9)	34 (21.1)	17.31** (4)	0.002
5 나는 AIDS보다 다른 질병에 걸리는 편이 낫다	93 (76.9)	11 (9.1)	17 (14.0)	102 (77.3)	8 (6.1)	22 (16.7)	86 (73.5)	13 (11.1)	18 (15.4)	2.29 (4)	0.683
6 AIDS에 감염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혈액검사를 한다면 혈액검사를 받았습니까?	104 (86.0)	12 (9.9)	5 (4.1)	122 (92.4)	6 (4.5)	4 (3.0)	100 (85.5)	9 (7.7)	8 (6.8)	5.01 (4)	0.286
7 나는 AIDS에 대해 충분히 들었으므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23 (19.0)	78 (64.5)	20 (16.5)	16 (12.1)	108 (81.8)	8 (6.1)	18 (15.4)	77 (65.8)	22 (18.8)	13.95** (4)	0.007
8 학생들이 감염관리 시간에 AIDS 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	95 (78.5)	6 (5.0)	20 (16.5)	126 (95.5)	3 (2.3)	3 (2.3)	105 (89.7)	6 (5.1)	6 (5.1)	21.69*** (4)	0.000
9 AIDS에 대한 혈청 양성반응 환자들의 치과치료를 특별한 격리시설을 갖춘 전문병원에서 진료해야 한다	116 (95.9)	1 (0.8)	4 (3.3)	119 (90.2)	7 (5.3)	6 (4.5)	105 (89.7)	10 (8.5)	2 (1.7)	9.22 (4)	0.056
10 치과병의원에서는 간염바이러스보다 AIDS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방지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	64 (52.9)	24 (19.8)	33 (27.3)	63 (47.7)	34 (25.8)	35 (26.5)	63 (53.8)	41 (35.0)	13 (11.1)	14.85** (4)	0.005
11 개인 치과의원에서 AIDS 혈청반응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나는 이해할 수 있다	75 (62.0)	26 (21.5)	20 (16.5)	87 (65.9)	29 (22.0)	16 (12.1)	79 (67.5)	23 (19.7)	15 (12.8)	1.48 (4)	0.831
12 치과위생사는 AIDS 혈청 양성반응 환자도 꼭 같이 치료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40 (33.1)	38 (31.4)	43 (35.5)	66 (50.0)	22 (16.7)	44 (33.3)	56 (47.9)	39 (33.3)	22 (18.8)	19.38** (4)	0.001
13 내가 만약 AIDS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109 (90.1)	6 (5.0)	6 (5.0)	122 (92.4)	4 (3.0)	6 (4.5)	101 (86.3)	14 (12.0)	2 (1.7)	10.52* (4)	0.033

*p<.05, **p<.01, ***p<.001

설에 위탁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과병의원에서는 간염바이러스보다 AIDS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방지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항목은 1학년, 3학년이 각각 52.9%, 53.8%로 2학년

학생 47.7%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 14.85$, $p < .01$). “치과병의원에서 AIDS 혈청반응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나는 이해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3학년 67.5%, 2학년 65.9%, 1학년

62.0%로 학년이 높을수록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치과위생사는 AIDS 혈청 양성반응 환자도 꼭 같이 치료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의 항목은 2학년 50.0%, 3학년 47.9%, 1학년 33.1%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9.38$, $p<.01$). “내가 만약 AIDS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에서는 2학년 92.4%, 1학년 90.1%, 3학년 86.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52$, $p<.05$). 이상으로 학년에 따른 AIDS에 대한 태도는 1, 3학년이 2학년보다 개인적으로 감지되는 위험을 묻는 문항인 “나는 AIDS에 걸리기 쉬운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와 “치과병의원에서는 간염바이러스보다 AIDS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방지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3학년이 1, 2학년보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AIDS에 걸릴 확률이 덜하지는 않다”에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AIDS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과 치과위생사가 AIDS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책임감을 묻는 항목과 진료과정에서 감지되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2학년이 1, 3학년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다.

4. 중괄 및 고인

병원환경은 병원체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많은 반면 숙주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되어 병원 감염이 문제된다. 즉 병원환경은 병원체에게 전파기회를 증대시켜 주는데, 예를 들면 다른 질환에 의해 면역 혹은 방어기전이 위약해진 환자들이 모여 있을 뿐 아니라 진단과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침습 조치나 조작들은 이들의 침입을 쉽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치과

병의원은 발치 등 치과 술식이 출혈성이며 외과 수술실 같이 특수 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보통 진료실에서 많은 기기를 이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혈액매개 전염병의 전파나 감염위험성이 크다³⁾. 그 중에서도 최근 10여 년간 세계적 유행을 일으키고 특효약 및 유효 백신 개발이 늦어져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AIDS에 대한 치위생과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치과위생사로서 AIDS 환자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치과병의원 내 전파경로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한 철저한 예방법과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재 치위생과에 재학중인 1, 2, 3학년 학생들의 AIDS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내용으로 응답자들의 AIDS에 대한 지식을 묻는 항목에서 AIDS의 원인을 묻는 문항 중 “AIDS가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에 46.5%, “스트레스는 AIDS를 발병시킨다” 76.8%, “AIDS는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61.1%, “AIDS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58.6%로 응답해 AIDS 감염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송⁸⁾ 등이 우리나라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AIDS 지식정도는 2학년, 3학년, 1학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IDS는 미국에서 남성 동성애자에서 처음 발견되었지만, 세계적으로 이성간의 성관계를 통하여 더 많은 전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AIDS 예방에 대한 문항중 “규칙적인 운동으로 AIDS를 예방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68.1%, “새로운 백신이 AIDS 예방을 위해 개발되었다”는 67.0%로 나타났다. AIDS 예방에 대한 학년별 지식은 2, 3,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AIDS 연구원들은 AIDS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것을 막는 비결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

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치료에 쓰이는 약제들은 생명을 다소 연장할 뿐인데 그나마 내성이 생겨 새로운 약제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바람직한 특효약은 없으며, HIV는 변이도 심하여 민족의 특수성에 따라 변신하는가 하면 약에 대한 내성도 강해 걸핏하면 돌연변이 한다. AIDS의 완전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선의 치료책이라고 할 수 있다. AIDS에 대한 심각성을 묻는 문항중 “AIDS는 신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의학적 상황이다”라는 질문에 70.8%의 학생들이 바르게 응답하여 윤⁹⁾ 등이 조사한 90.2%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AIDS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그 질병으로 죽는다”는 문항에는 45.1%만이 바르게 응답하여 인체 내에 침투한 HIV가 서서히 면역기능을 파괴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AIDS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식은 다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IDS 고위험군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인 “동성애자는 AIDS에 걸리기 쉽다”는 81.9%의 학생이 바르게 알고 있었다. 최근 AIDS 감염은 윤락여성보다는 동성애자를 통한 경우가 더 많으며, 특히 동성애로 인한 AIDS 감염의 경우 감염자가 그 이유를 잘 밝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인 숫자보다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신한 여성이 AIDS에 걸리면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수직감염의 사실은 87.6%의 응답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 2월 부부가 함께 AIDS에 걸린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1995년 3월 신생아에서 처음 감염사실이 보고 되고, 99년 여고 2년생이 AIDS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었으며, 2001년에는 10대 2명이 감염자로 확인된 바 있다. “성교시 콘돔을 사용하면 AIDS에 감염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문항은 85.1%의 학생이 바르게 알고 있었다. 우간다

는 콘돔 사용으로 환자수를 격감시켰고, 태국도 콘돔 사용 캠페인으로 환자수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HIV에 감염된 사람들은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HIV 감염자 10명 중 4명은 성관계를 갖는 상대에게 자신의 상태에 관해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¹⁰⁾. 또한 “AIDS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으면 AIDS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은 95.9%의 학생들이 바르게 알고 있었다. 혈우병 같은 출혈장애를 갖는 사람에게 HIV로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의 수혈은 AIDS 감염 원인 가운데 3%정도를 차지한다. “AIDS에 걸린 사람이 사용한 주사바늘을 사용하면 AIDS에 걸린다”는 항목에서는 92.4%의 학생들이 바르게 응답하였다. 정맥주사에 의한 마약사용은 사용된 바늘에 남아 있는 혈액을 통해 타인에게 AIDS를 전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감염된 혈액이 혈류 내로 바로 주입되기 때문에 감염효과가 매우 높은 전파경로이다. 병의 전파에 대한 학년별 지식은 2학년이 가장 높았고, 3학년, 1학년 순으로 높았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27, p<.05$). AIDS 환자와의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AIDS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지식을 묻는 문항에 대한 학년별 지식 정도는 2학년이 1, 3학년 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모기에게 물렸을 경우 HIV는 곤충의 몸체 속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 그러나 모기는 AIDS 환자들이 많은 플로리다의 ‘벨레 글레이드’ 지역에서 최초로 생겨났다는 기원설 때문에 AIDS와 모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연구되어 왔지만 모기와 AIDS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록 HIV-1형이 타액에서 검출되었을지라도 일상적으로나 가족간의 단순한 접촉으로는 전염된 경우가 없었으며, HIV에 감염된 환자에 의해 물리거나 할퀴 의료종사자의 추적조

사에서 전염은 발생되지 않았다. 따라서 건전한 성생활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이 병에 감염될 확률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모두 살펴보면, AIDS에 대한 지식은 2학년이 가장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 1학년 순으로 높았고,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97$, $p<.01$). AIDS와 관련된 태도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45.1%가 AIDS에 걸릴까봐 두렵다고 하여 Diclemente⁷⁾, 윤 등⁹⁾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50.4%, 3학년 49.6%, 2학년 34.8% 순으로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HIV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들과 접촉할 때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적으로 감지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72.4%, 학년별로는 1, 3학년이 각각 73.6%, 73.5%로 2학년 70.5%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12$, $p<.05$). 또한 AIDS에 감염될 확률에서는 25.9%, 학년별 인식 정도는 3학년이 41.9%, 1학년 36.4%, 2학년 31.1% 순의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7.31$, $p<.01$). “나는 AIDS보다 다른 질병에 걸리는 편이 낫다”는 문항에서 75.9%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하였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76.9%, 2학년 77.3%, 3학년 73.5%로 윤 등¹¹⁾의 연구 76.9%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AIDS 감염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혈액검사는 대부분(88.1%)의 학생들이 혈액검사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92.4%로 1학년 86.0%와 3학년 85.5%보다 높게 나타나 윤 등⁹⁾의 연구 56.4%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AIDS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71.1%의 학생들이 교육의 필요성에 응답하였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 81.8%, 3학년

65.8%, 1학년 64.5%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AIDS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교에서 받는 AIDS 교육의 중요성은 88.1%로 대부분을 차지해 AIDS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95.5%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고, 3학년 89.7%, 1학년 78.5%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AIDS 환자의 치료에 대한 질문으로 “AIDS에 대한 혈청 양성반응 환자들의 치과치료를 특별한 격리시설을 갖춘 전문병원에서 진료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91.9%의 학생들이 전문시설로 위탁하는 것에 찬성하였고,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1학년 95.9%, 2학년 90.2%, 3학년 89.7%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Kunzel¹¹⁾과 Sadowsky¹²⁾의 연구결과 29%, McCarthy 등¹³⁾의 연구성적 34.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게 나타나 철저한 기구관리와 적절한 예방조치만 이루어진다면 감염될 확률은 희박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1.4%의 학생들이 “치과병의원에서는 간염 바이러스보다 AIDS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방지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 47.4%, 1학년, 3학년이 각각 52.9%, 53.8%로 나타났다. HIV가 HBV보다 타액을 통한 전파가 아주 낮은 위험성을 갖는 것은 감염된 사람의 타액 내에 바이러스의 농도가 매우 낮으며, 사람의 타액내의 단백질 성분이 HIV-1형의 감염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료시 접촉을 통한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높다하더라도 타 의료직 종사자들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감염방지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65.1%의 학생들이 “치과병의원에서 AIDS 혈청반응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도 21.1%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 67.5%, 2학년 65.9%, 1학년 62.0%로, 학년이 높을수록 높은 인식을 보였다. 치과위생사의 책임감을 묻는 문항인 “치과위생사는 AIDS 혈청 양성반응 환자도 꼭 같이 치료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에 대해서는 2학년 50.0%, 3학년 47.9%, 1학년 33.1%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19.38$, $p < .01$). 진료과정에서 감지되는 두려움에 대한 문항에서는 그렇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8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학년 92.4%, 1학년 90.1%, 3학년 86.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10.52$, $p < .05$). 이상으로 학년에 따른 AIDS에 대한 태도는 1, 3학년이 2학년 보다 개인적으로 감지되는 위험을 묻는 문항에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3학년 학생이 1, 2학년 학생보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AIDS에 걸릴 확률이 덜하지는 않다”에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AIDS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과 치과위생사가 AIDS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책임감을 묻는 항목과 진료과정에서 감지되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2학년이 1, 3학년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 향후 치과진료실에서 근무하게 될 치위생과 학생들이 감염위험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치과병의원 내에서의 전파경로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한 철저한 예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AIDS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에 재학중인 1, 2, 3학년

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병의 전파에 대해서는 59~92%의 학생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병이 전파되지 않음을 알고 있는 학생은 63~91%의 응답자들이, AIDS의 원인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41~77%의 응답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5~83%의 학생들이 AIDS의 심각성에 대해 바르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AIDS 예방에 대해서는 33~68%로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학년에 따른 AIDS에 대한 지식 정도는 2학년이 1, 3학년보다 병의 전파에 대한 지식과 AIDS 원인에 대한 지식, 그리고 AIDS 전반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AIDS에 대한 태도에서는 72.4%의 학생들이 AIDS에 걸리기 쉬운 부류의 사람은 아니지만, 36.2%의 학생들은 AIDS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AIDS에 걸릴까봐 두렵다고 응답한 학생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44.6%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AIDS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71~88%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AIDS 환자는 특별한 시설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92%로 높게 나타났으며, 진료과정에서 감지되는 두려움은 90%로 높게 나타난 반면, AIDS 환자도 꼭 같이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44%로 나타나 향후 치과위생사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학년에 따른 AIDS에 대한 태도에서는, 1, 3학년이 2학년 보다 개인적으로 감지되는 위험을 묻는 문항인 “나는 AIDS에 걸리기 쉬운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와 “치과병의원에서는 간염바이러스보다 AIDS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방지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3학년 학생이 1, 2학년 학생보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

들보다 AIDS에 걸릴 확률이 덜하지는 않다"에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AIDS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과 치과위생사가 AIDS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책임감을 묻는 항목과 진료과정에서 감지되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2학년이 1, 3학년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백신의 개발도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각자의 개인적인 감염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정부차원에서 이 질병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 측면이 아니라 향후 치과 진료실에 종사하게 될 치위생과 학생들이 이런 심각한 감염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진료체계 및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와 철저한 기구관리로 질병의 감염을 적극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UNAIDS. 국외 에이즈 감염자 현황. 2002. 12.
- 국립보건원.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 현황. 2003. 6.
- 김정순. 치과병의원을 통한 전파위험 전염증.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94;32:422-424.
- Center for disease control. Recommendations for preventing transmission of HIV and HBV to patients during exposure-prone invasive procedures. MMWR 1991;40:8.
- Center for disease control. Update investigations of patients who have been treated by HIV-infected health care workers. MMWR 1992;41:344-346.
- Dios PD, Feijoo JF, Garcia EV. Tooth extraction in HIV sero-positive patients. Int Dent J 1999;49:317-321.
- Diclemente RJ, Zone J, Temoshok L. A survey of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about AIDS in San Francisco. Am J Public Health 1986;76:1443-1445.
- 송근배, 장병건, 정성화, 김혜영, 이영은. 우리나라 치과대학생들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1;25(3):289.
- 윤형렬, 홍대용, 이종영, 박성학, 이한우, 최현림, 이석구. 일부 대학생에 있어서 에이즈에 관한 지식, 태도 및 관심도 조사. 대한보건협회지. 1990;16:31-37.
- 미국의학협회지. 1998;11.
- Kunzel C, Sadowsky D. Comparing dentists' attitudes and knowledge concerning AIDS. J Am Dent Assoc 1991;122:55-66.
- Sadowsky D, Kunzel C. Increasing knowledge of AIDS/HIV infection through continuing education. NY State Dent J 1992;58:21-23.
- Mccarthy GM, Koval JJ, Macdonald JK. Geographic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knowledge and infection control practices of Ontario dentists. C, J Public health 1996;87:119-124.
- Verrusio AC. Risk of transmission of th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o health care workers exposed to HIV infected patients. J Am Dent Association 1989;118:339-342.

Abstract

A study on AIDS-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among dental-hygiene students

Hyun-Sook Kang

Dep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College

Key words: AIDS, HIV, Knowledge, Attitud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uch knowledge dental-hygiene students had about AIDS and how they looked at tha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70 freshmen, sophomores and juniors who were majoring in dental hygien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 rate of the students who were accurately aware of AIDS dissemination ranged from 59 to 92 percent. Those who knew that the disease didn't spread through routine daily contacts stood at 63 to 91 percent, and the students who were correctly cognizant of the cause of AIDS numbered 41 to 77 percent. Those who grasped the seriousness of that disease stood at 45 to 83 percent. The students weren't properly aware of how to prevent AIDS, as just 33 to 68 percent knew about that. Concerning connections between school year and AIDS knowledge, the sophomores had a better knowledge on its dissemination, cause and AIDS itself than the freshmen and juniors. As for attitude toward AIDS, 72.4 percent considered themselves not to be susceptible to that disease, but 36.2 percent felt that they were likely to develop it. 44.6 percent weren't afraid of being attacked by that disease, but more students feared about that possibility. Most of the students, who ranged from 77 to 88 percent, hoped to continue to be educated about that, and as many as 92 percent believed that AIDS patients should separately be treated. A lot of the students, which accounted for 90 percent, felt fear in the course of treatment, but 44 percent believed that AIDS patients should equally be treated, which indicated that they had a sense of responsibility.

As to the relationship of school year to attitude toward AIDS, when their ideas about the

danger of AIDS were asked, the freshmen and juniors considered themselves not to be susceptible to that disease more than the sophomores did, and the former group felt, more than the latter, that AIDS infection should be more thoroughly prevented than hepatitis in dental clinic. The juniors had a stronger tendency to find themselves to be exposed to AIDS as equally as most other people, compared to the freshmen and sophomores. The sophomores felt higher need for AIDS - related education, and had a stronger sense of duty about treating AIDS patients, and were more apprehensive of the disease in the course of treatment than the freshmen and juniors did.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every individual should be cautious not to develop AIDS, as there is still no workable vaccine. Since the nation is not free from the horrible disease, the government should put more efforts into researching and preventing it. But what's most important is that dental-hygiene students, who will be committed to dental treatment in the future, should precisely be cognizant of the seriousness of that disease, and try to stay away from it by using protective devices and handling dental supplies properly. And the type of treatment system that could prevent AIDS infection should be established.